

北韓의 經濟學 體系 概觀*

朴 淳 成

- I. 서론
- II. 북한 경제학의 개관
- III. 북한 경제학의 변화과정
- IV. 북한 경제학 체계의 기초부문: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
- V. 북한 경제학 체계의 응용부문: 주체의 경제관리론
- VI. 결론

I. 서론

1. 북한의 경제학과 경제현실

경제학은 사회현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경제학의 연구대상은 사회현실 중에서 사회의 물질 기반이라 불리는 경제현상이다. 각 학문의 성격이 연구대상의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완성되었음.

없다면, 경제학도 연구대상인 경제현상의 특성으로부터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북한의 경제학은 북한의 경제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며, 북한의 경제현실을 반영한다. 북한의 경제현상이 사회주의식 명령형계획경제체제라면, 북한 경제현실을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북한 경제학의 지배적 형태와 주된 경향은 사회주의식 명령형계획경제체제의 이념과 작동원리를 기본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가 식민지상태를 벗어난 상태에서 산업화를 추구하는 상태에 있다면, 북한의 경제학은 근대화 또는 경제성장과 관련된 경제학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연구대상과 학문(분과)간의 관계는 이처럼 단순하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과학에서 연구대상인 사회현실은 인식의 대상인 동시에 인식의 출발점이자 배경이다. 지식활동의 존재론적 조건을 형성하는 사회현실은 사회과학자가 과학이론을 구성해 나가기 전에 사회과학자의 인식틀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이론의 근본 성격과 방향을 결정한다. 사실, 사회현실은 세계에 대한 때로는 형이상학적이고, 때로는 종교적이고, 때로는 철학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인 관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세계관은 과학이론의 배경조건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과학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지배적이거나 널리 퍼져있는 세계관에 기초하여 현실에 대한 과학이론을 구성한다.¹⁾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 개개인은 사회현실에서 자신이 처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며, 이 관점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회이론을 만든다. 결국 사회과학자가 보편적 사회구성원의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 인식의 조건을 형성하는 사회현실로부터 벗어

1) 슈페터의 표현을 빌면, 사회현실은 과학적 지식 이전 상태인 전과학적 인식의 형성을 통해 사회과학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사회현실에서 지배적인 세계관이 단 하나뿐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Schumpeter(1954), 제1부 2장 참조.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현실과 사회과학의 관계는 연구대상과 학문-연구결과의 관계라는 단순한 형태를 넘어선다. 북한 경제학에서 본다면, 북한의 경제현실은 사회 전체 차원에서 사회주의적이고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북한사회의 지배이념을 통해 북한 경제학을 규정한다. 또한 개별 경제학자의 신분적·계급적 사회통제를 통해 북한의 정치·사회·경제현실은 북한 경제학의 기본 방향과 성격을 과학이론 형성 이전에 결정한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지배이념에 의해 인정받는 공식적 경제학만이 주된 학문결과로 남게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인식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인식의 조건으로서 사회현실이 갖는 사회과학에 대한 규정력은 사회과학자가 인식의 주체로서 가질 수 있는 자발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과학자는 개인, 집단 및 정부를 포함한 사회행위자의 사회적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현실에 대하여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 있지만은 않다. 사회현실은 인식의 대상인 동시에 행위의 대상이다. 사회에 대한 사회행위자의 의사결정이 사회현실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인식에 기초를 둔다는 점에서 사회적 행위가 사회현실의 규정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행위자의 의지는 사회현실에 대하여 상당히 능동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치가들의 학문이라고 불리는 경제학의 경우는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제현실을 변화시키는 원천이 된다. 여기에서 정책결정자와 사회과학자의 의지에 영향을 주는 과학이론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그러나 사회현실의 제약을 받는 세계관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부각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도덕적·정치적 규범판단과 그에 기초한 실천의지가 가지게 되는 중요성을 통해 사회현실과 사회과학의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²⁾ 북한의 경우,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라는 목적

2) 이상의 논의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하나는 도덕판단 및 세계관이 현실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판단과 세

의식적 행위동기는 북한 경제학 전반에 대하여 규정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현실과 사회과학의 관계가 단순하거나 일방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과학이 추구하는 이론에 앞서 사회현실이 객관적 현실로 '이미' 주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과학의 경우보다 더욱 분명하게 사회과학에 있어서 과학자는 주어져 있는 사회현실을 경험한 후 경험에 기초하여 과학이론을 형성하기보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현실을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 이론을 발전시킨다. 사회과학과 사회현실은 상호규정적이며, 사회현실은 사회과학을 통해 '진정한' 사회현실로 승인받는다.³⁾ 북한의 경우 북한의 경제현실은 북한의 경제학에 기초해서만 '진정한' 때로는 '우리식' 사회주의경제체제가 된다.⁴⁾

2. 연구방법과 논문구성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에서 나타나는 과학과 현실간의 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북한의 경제학에 대한 연구가 갖는 방법론적 어려움을 드러나게 한다. 북한의 경제학은 북한의 경제현실과 분리될 수

계관이 상호규정적이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철학사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도덕판단, 소위 칸트의 자유이성이 사회현실로부터 갖는 자율성은 강조하는 반면, 세계관이 사회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도덕판단과 세계관의 상호규정력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는 엄밀한 차이가 있음을 전제한다. 세계관은 어떤 의미에서 도덕판단과 사회현실을 연결해 주는 매개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 3) 다소 역설적이지만 좀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과학자에게 있어서 과학이론없는 과학적 경험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경험은 곧 이론적 행위이다.
- 4) '우리식사회주의'라는 불분명하고 자기준거적인 개념은 북한이 극도의 경제위기에 처하기 시작하는 198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1989년 12월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248~273.

없으며 또한 북한의 사회현실로부터 규정받는 북한체제의 이념·목표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이는 북한 사회의 외부에 사는 연구자가 북한의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현실과 북한체제의 이념·목표를 동시에 고찰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북한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현실과 체제이념·목표를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요구는 북한 경제학에 대한 연구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경제현실, 경제학, 체제이념·목표 세 요소간의 관계는 마치 폐쇄된 공간처럼 외부적 관찰을 거부하거나 관찰을 피상적 수준에 머무르게 한다. 또한 전혀 다른 경제현실에 살고 있는 외부관찰자는 자신의 세계관이나 과학이론에 갇혀 북한의 현실(경제현실, 경제학, 체제이념·목표)을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현실에 직접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에 대한 신빙성 있는 일차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리고 북한의 경제학 문헌이 부족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는 풍부한 자료분석과 현장조사라는 실증적 방법에 의해 달성될 수 없다. 또한 북한 체제의 특수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태비교론과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북한의 개별성을 완전히 파악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⁵⁾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북한이라는 폐쇄공간⁶⁾에 대한 '사고실험'을 감행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흔히 강조되는 내재적 연구법·접근법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실험은 북한 경제학이

5) 카스트제도에 기초한 인도사회와 개인주의적 시민사회에 기초한 유럽사회를 인류 사회학적으로 비교한 뒤몽(Dumont, 1977)은 개별 문명 혹은 문화가 자기 자신의 관념에 갇혀 다른 문명과 문화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비교문화론을 통해 타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타인은 우리 자신의 거울이다. 그러나 인도사회와는 달리 실증연구가 쉽지 않은 북한 사회의 경우에는 비교, 심지어 사회주의국가들간의 비교를 통한 이해라는 것조차 첫 단계에서는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6) 오해를 막기 위하여 여기에서 '폐쇄공간'이란 인식론적 조건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어야 할 것이다.

경제이론과 이념의 융합체라는 특성과 북한의 경제학과 (경제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려는) 경제정책 간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 북한이 강조하는 주체이념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라는 경제정책의 대강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는 우선 주체이념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이라는 두 창을 통해 북한 경제학의 외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이론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북한 경제이론과 이념·경제정책간의 상호작용과 일관성을 반복적으로 해석해 나가면서 북한 경제학의 전체상을 점차 그려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자는 북한 경제학이 하나의 순수이론체계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담론체계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북한의 경제학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라는 목표를 명분으로 내걸고 김일성-수령을 중심으로 한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배이데올로기 혹은 지배적 사회담론이다.⁷⁾ 북한의 경제학을 담론체계로 파악할 때, 연구자는 북한 경제학 체계를 담론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상, 담론의 과학적 부분인 이론 그리고 담론의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정책으로 파악해 내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위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파악된 북한 경제학 체계에 대한 전체상을 사상·이론·정책이라는 세 요소에 중점을 두고 제시해보려고 한다. 이는 북한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 연구작업의 결과이다.⁸⁾ 논문의 2장과 3장에서는 북한이 제시하는 경제학의 개념정의와 분류체계를 우선 검토하고, 북한 경제학의 변화과정을 개괄한다. 4장에서는 북한 경제학 체계의 기초부문에 해당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7) 북한의 경제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일반이 하나의 사회담론이라는 경제학 일반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Samuels(1989) 참조.

8) 이러한 연구작업의 성과 위에서 북한 경제학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이해와 남북한 경제학 체계의 비교가 가능해 질 것이다. 한편, 비교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개념체계간의 소통의 문제, 다시 말해 개념과 개념간의 일치성과 번역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깊이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정치경제학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경제학의 사상과 이론을 주로 밝혀낼 것이다. 다음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에 기초하여 세워진 북한 경제학 체계의 응용부분에 해당하는 주체의 경제관리이론, 즉 북한의 경제운영원리를 5장에서 검토함으로써, 북한 경제학 체계의 개략적 전체상을 마무리한다.

II. 북한 경제학의 개관

1. 경제학의 정의

북한의 『경제사전 1』(1985년)에 따르면, 경제학은 “사람들의 물질경제생활의 역사적인 발전단계에서 사회경제제도의 형성과 발전, 교체의 합법칙성을 밝히며 사회의 다양한 경제현상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일반화하며 물질적부의 생산과 리용에서 요구되는 실천적 방안들의 작성을 자기의 기능과 과업으로 하는 과학의 총체”이다.⁹⁾ 북한은 경제학이 경제생활의 합법칙성과 실천적 원리를 밝힌다는 점에서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하나의 과학체계를 이룬다”고 강조하면서, 경제학의 과학적 특성에 비중을 둔다.¹⁰⁾

경제학에 대한 북한의 정의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세 가지이다. 첫째, 경제학은 사회의 물질경제생활 혹은 물질적 부의 생산·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학문이다. 『경제사전(1985) 1』은 김정일의 주장을 옮겨 놓고

9)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1985), pp.116~7. 이하에서 1985년 판 『경제사전 1』은 『경제사전(1985) 1』로, 1970년 판 『경제사전 1』은 『경제사전(1975) 1』로 표기한다. 북한의 원전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북한의 표기법을 따랐다.

10) 『경제사전(1985) 1』 p.117. 이 점에서 경제학은 “일명 경제과학이라고도 한다.” 『경제사전(1985) 1』, p.116.

있다. “경제는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활동분야이며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룬다. 사람들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하여 끊임 없이 투쟁하며 그 결과에 얻어진 생산물을 분배하고 교환하며 소비한다. 이러한 경제생활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기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켜나간다.”¹¹⁾ 경제를 물질적 수요의 충족을 위한 인간들의 자연정복·개조를 통한 생산활동 및 여기에서 얻어진 생산물의 분배·교환·소비활동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고전파정치경제학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경제에 대한 전통적이며 일반적인 관점이다. 그러나 이 관점은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인간들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전통에서는 다소 벗어나며, 효용의 충족을 강조하는 근대경제학의 경제에 대한 관점으로부터도 벗어난다. 비록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에서 ‘사람’이 경제주체로서 갖는 지위와 ‘사회의 생산관계와 경제관계에서 나타나는 집단 또는 계급의 이해관계’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¹²⁾ 이론의 중점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놓여 있다. 더욱이, 경제학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개조하려는 투쟁이라는 형태로 규정됨으로써, 북한의 경제학은 인간과 자연의 적대적 관계에 기초하여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 가는 과정으로 역사를 파악하려는 근대계몽사상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¹³⁾ 이처럼 경제학에 대한 정의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세계관은 인간중심주의라는 미명 아래 물질중심주의와 반생태주의에 빠져들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학은 역사적 발전단계와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제제도의 형성·발전·교체의 합법칙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북한의 경제학이 초역사적 성격을 지닌 경제이론을 추구하지 않고 역사적

11) 『경제사전(1985) 1』, p.116.

12) 리기성(1992), pp. 22~3.

13) 북한의 주체사상에 담겨 있는 근대계몽사상의 인간중심주의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찰을 요구한다.

으로 제한 받는 경제이론을 구성하려고 하며, 또한 경제행위자들의 경제활동을 경제제도라는 사회적 틀속에서 파악하려고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경제활동의 역사성, 따라서 이를 다루는 경제학의 역사성을 중시하며 경제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중시함으로써 북한의 경제학은 넓은 의미의 역사학문으로 규정될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경제제도를 강조함으로써, '사회 없는 개인' 혹은 '원자화된 개인'을 상정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자유주의적 경제학이나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채택하는 경제학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제도를 강조하는 제도주의 경제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체이념은 주체의 사회주의사회(경제체제)에서 계급이 소멸하고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이념적 구호가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에서 실제로 전과되는 경제학에서는 역사성과 사회제도가 궁극적으로 사라지고 오직 무계급성에 기초한 경제계획원리만이 유일지배체제를 위해 남게 된다.

셋째, 북한의 경제학은 이론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다. 경제학이 발전해 내는 경제생활의 합법칙성은 경제활동의 실천적 방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문의 실천성을 중시하는 태도는 일종의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과학의 근본 성격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천성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현실에 의한 이론의 제약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이론과 현실간의 거리가 무시됨으로써, 경제학은 경제학 자체의 내재적 발전가능성을 상실하고 만다. 내재적 발전가능성을 상실한 경제학은 북한의 이념적 경직성 하에서 낡은 이론에 집착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잃고 만다. 결국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비판이 강조하고 있던 '비판의 무기'로서 경제학이 갖추어야 할 생명력은 상실되고, 북한의 경제학은 경제학 외부에서 정치적 요구에 따라 제시되는 실천강령에 의해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이론체제로, 나아가 지배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예속적 '과학이론'으로 전락한다. 이는

북한의 경제학 문헌들이 한결같이 다른 학문분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김 일성과 김정일의 '지적'을 바탕으로 구성되고, 그들의 '강령적 교시'를 연결해 내는 담론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2. 경제학의 분류체계

북한의 경제학 체계를 가장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학 분과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학 분류와 연관시켜 주목할 점은 경제학 분과의 형성을 경제생활의 발전에 따른 경제학의 실천적 응용의 결과로 파악한다는 사실이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역사학문의 성격을 지닌 경제학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생활의 발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실천적 의지에 기초한 의식의 발전에 따라 이루어졌다.¹⁴⁾ 이 과정에서 경제학은 다양한 학문분과로 분화되고, 아울러 경제생활과 관련한 법칙과 범주의 체계적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적할 만한 점으로는 개별 경제과학 분과들의 관계를 분화의 측면에서만 파악하지 않고 상호침투하고 보충하면서 경제과학의 통일적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사실이다.¹⁵⁾

1) 대상의 특성에 따른 분류

세분화된 경제학의 분과는 우선적으로 대상의 특성에 따라 일반경제학, 전문경제학, 부문경제학으로 구분된다. 일반경제학은 연구영역이 경제의 한 측면이나 한 부분에 제한되지 않고, 경제적 과정 전반 또는 경

14) “하나의 단일한 경제학으로부터 오늘의 세분된 여러 과학분과들로 이루어진 경제과학으로의 발전은 사회적생산력의 발전,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의 심화 발전에 의하여 이루어진 역사적인 산물이다. 사람들의 사회경제생활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경제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확립되게 되었다.” 『경제사전(1985) 1』, p.117.

15) “매개 경제학은 자기의 고유한 대상과 방법을 가지면서도 호상침투하고 호상보충하면서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경제사전(1985) 1』, p.117.

제적 구조 전체를 다루는 경제학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경제학은 경제과학의 일반학이요 기초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경제학에 속하는 분과로는 정치경제학, 인민경제사, 경제학설사가 있다.¹⁶⁾ 북한은 정치경제학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모든 경제과학들, 개별경제학들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가 된다”라는 지위를 부여한다.¹⁷⁾

정치경제학의 명제에 기초하여 총체적 경제과정의 일정한 측면이나 부분을 다루는 경제학이 전문경제학과 부문경제학이다. 『경제사전(1970) 1』에 따르면 개별경제학은 정치경제학에 의해 해명된 일반적 경제법칙들과 경제법주들의 ‘특수한 발현형태’를 다룬다. 여기에서 ‘발현형태’라는 표현은 정치경제학과 개별경제학의 관계를 본질과 현상의 관계에 대응시키는 느낌을 주고 있다. 1970년에 제시된 이러한 기준은 1985년에 와서 폐기되고, 오히려 일반경제학과 전문경제학·부문경제학의 관계는 일반과 특수, 혹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규정된다. 이 점에서 북한 경제학 체계의 분류는 1970년에 비해 1985년에 좀더 엄밀해졌다.¹⁸⁾

전문경제학은 경제과정의 일정한 측면이나 특수한 내용만을 다루는 경제과학의 분과이다. “여기에는 경리운영문제를 취급하는 경영학과 경제현상의 량적관계와 통계적합법칙성을 연구하는 경제학(경제통계학,

16) 『경제사전(1970) 1』에서는 개별경제과학으로 전문경제과학과 부문경제과학을 들고, 인민경제사, 경제학설사, 경제사상사를 경제학의 특수한 분야로 분류한다.(p.99) 1970년의 분류는 1985년의 분류에 비해 다소 비체계적이다.

17) 『경제사전(1970) 1』, p.99.

18) 경제과학 체계에서 현상과 본질의 관계는 유통영역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을 집중하는 속류경제학과 생산영역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발전시킨 사회주의정치경제학(혹은 ‘과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의 관계로 볼 수 있다. 한편, 『경제사전(1985) 1』은 생산영역에 대한 이론분석을 제시한 맑스-레닌주의경제이론에 기초하여 경제학이 여러 분과로 분화하고 체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일반경제학과 전문·부문경제학의 관계가 비록 일반과 특수,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대한 일반경제이론이 확립되어서야 비로소 부문경제이론이 성립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기계산학, 경영활동분석 그리고 재정, 화폐유통, 가격학, 노동경제학) 등이 포함된다.”¹⁹⁾ 전문경제학과 관련하여 분류체계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학문분과는 ‘인민경제계획화’와 ‘경제수학적방법’과 관련된 이론체계이다. 『경제사전(1985) 1』은 인민경제계획학과 경제수학이 전반적 경제과정을 다루지만, 취급하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경제학이라고 규정한다.²⁰⁾

전문경제학으로 분류된 경제과학 중에서 주목하여야 할 분과는 경영학이다. 위에서 경영학은 ‘경리운영문제’를 취급하는 분과로 규정되었으나, 『경제사전(1985) 1』은 경영학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곳에서 “기업의 관리운영을 위한 경제활동에서 발현되는 합법칙성들을 연구하는 경제과학” 다시 말해 ‘기업소 차원에서 행해져야 할 경제지도관리원칙에 대한 경제과학’으로 재정의하고 있다.²¹⁾ 경영학에 대한 이러한 개념규정은 한편으로는 경제학과 경영학의 미분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회계학과 경영학의 미분화를 보여준다. 경영학이 경제학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의 기업소가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처럼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소유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경영학 속에 회계학의 개념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북한 기업소 운영에서 가격기구에 기초한 경제성의 추구가 엄밀하지 않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부문경제학은 경제과정의 특수한 측면이 아니라 특수한 영역 또는 부문을 다루는 학문분과이다. 산업부문에 기초하여 분류한 공업경제학,

19) 『경제사전(1985) 1』, p.117.

20) 엄밀하게 본다면, 경제수학은 ‘취급하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적 과정의 일정한 측면 또는 특수한 면만을 본다는 기준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경제수학의 경우에는 방법론적 특수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수한 방법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의 특수한 측면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수학을 전문경제학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21) 『경제사전(1985) 1』, pp. 129~130.

농업경제학, 건설경제학, 운수경제학, 상업경제학, 무역경제학 등이 부문경제학의 주요 분야이며, 각 분야는 내부에서 다시 세분화된다.²²⁾ 북한의 부문경제학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경제학의 영역속에 각 산업분야의 기술적 측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경제가 명령형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경제학이 실질적인 계획사업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제정책적 면을 많이 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2) 실천적 의의에 따른 분류

경제학의 실천적 성격을 강조하는 북한의 경제학은 실천적 의의에 따라 기초경제학과 응용경제학으로 구분된다. 기초경제학은 정치경제학과 같이 “객관적인 경제법칙의 인식과 그 리용의 조건들, 나라의 물질적자원의 합리적리용을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해명하여 경제실천에 원리를 주는 과학,” 다시 말해 응용경제학의 출발점이 되는 명제와 원리를 제공하는 경제과학이다.²³⁾ 여기에는 “자본주의이전정치경제학, 자본주의정치경제학, 사회주의정치경제학” 등이 포함될 것이다.²⁴⁾ 응용경제학은 경영학, 재정학, 노동경제학과 같이 “부문적인 또는 국부적인 과업의 해결, 구체적인 경제적 기준과 과업의 설정, 경제적조종의 개선완성과 관련된 대책들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며 경제실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복무한다.”²⁵⁾ 기초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의 구분에 따르면, 일반경제학에 속하는 경제사나 경제학설사는 기초경제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2) 예를 들면, 공업경제학은 전력공업경제학, 석탄공업경제학, 기계제작공업경제학, 방직공업경제학으로, 농업경제학은 농산경제학, 축산경제학, 산림경제학으로 분화된다. 『경제사전(1970)』 1, p.99.

23) “정치경제학은 사회경제생활의 일반적합법칙성을 연구하는 과학으로서 경제과학 체계에서 기초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경제사전(1985)』, p.118.

24) 『경제사전(1985)』, p.118.

25) 『경제사전(1985)』, p.118.

기초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의 구분은 양 분과의 관계를 고찰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북한은 사회경제제도발전의 합법칙성에 맞는 합리적·효과적 경영방법과 실천방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초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이 밀접히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초경제학을 무시한 응용경제학은 경험주의에 빠지거나 경제 전반에 손실을 줄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한다. 결국, 기초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은 '일반원리를 다루는 과학'과 '실천적 수단을 제시하는 기술'이라는 두 극단적인 개념 및 '전체적·포괄적 이론'과 '부분적·실천적 이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각 학문분과는 실제로 있어 기초적 성격과 응용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강조되어야 할 점은 북한의 구분에 드러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점이다. 기초경제학은 과학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제도의 이념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회담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따라서 일종의 경제사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응용경제학은 주어진 이념체계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어떻게 각 부문에서 달성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정책·실용과학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활동의 실무지침서와 같은 형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다. 이는 북한 경제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이 한편으로는 이념·사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으로 편향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북한 경제학의 분류를 하나의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북한 경제학 분류표

이념·사회 담론으로 편향	기초·일반 경제학	응용·전문 경제학	응용·부문 경제학	기술·정책 과학으로 편향
	정치경제학	경영학, 재정학, 노동 경제학, 인민경제계획 학, 경제수학 등	공업경제학, 농업경제학, 경제조종학 등	

III. 북한 경제학의 변화과정

1. 경제학 문헌과 연구방법

북한의 경제학 관련 문헌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의 저작을 편집한 문헌, 북한의 경제학자들이 저술한 단행본, 경제학 전문학술지 및 일반 신문·잡지에 기고된 경제 관련 논문들 그리고 북한의 경제용어에 대한 정의·해석을 담고 있는 『경제사전』이 바로 그것이다.

김일성의 저작은 전집류 형태로 몇 차례 출판되었다. 지금까지 나온 김일성의 전집류는 『김일성선집』 제1판(1953~54: 1~4권), 『김일성선집』 제2판(1960~64: 1~6권), 『김일성저작선집』(1967~87: 1~9권), 『김일성저작집』(1979~1996: 1~44권)²⁶⁾이 있다. 전집류 이외에 김일성의

26) 『김일성저작집』 44권(1996)은 1994년 7월 6일까지의 논문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의 저작은 실질적으로 총괄 정리된 셈이다. 물론, 『김일성저작집』의

경제 관련 저작들을 따로 편집한 서적 중 중요한 것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1970~83: 1~5권)와 『주체의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1988)가 있다.²⁷⁾ 김일성의 저작과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점은 저작의 내용이 수정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1970년대 들어 주체사상이 정형화되는 과정에서 대외자주성과 경제발전전략과 관련하여서는 대폭 수정이 이루어졌다.²⁸⁾ 한편, 김정일의 저작은 『김정일선집』(1992~1993: 1~2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1992),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1987~1988: 1~5권)가 있다. 김일성·김정일 저작은 단순히 개인의 저작이라기보다는 북한 사상·경제이론가들이 집단으로 행한 이론작업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⁹⁾

북한의 경제학자들이 저술한 단행본은 기초경제학에 해당하는 이론서, 응용경제학에 해당하는 부문별·영역별 이론서, 김일성·김정일 저작에 대한 해설서, 경제현황·정책과 직접 관련된 저서로 구분할 수 있다.³⁰⁾ 기초이론서로서 주목할 만한 저서로는 1992년 리기성과 한득보에 의해 각각 출판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권과 2권이다. 북한 경제학 분야 단행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문별·영역별 이론서들은 경제관리, 노동행정, 소유, 생산조직, 기술, 농업, 공업, 건설, 재정금융·화폐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다.³¹⁾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관련해서는 1992년 출판된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이 기본

후속권이 몇몇 누락된 논문의 출판이라는 형식으로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27) 참고문헌 참조.

28) 김병로(1993. 7), pp.109~110 참조.

29) 특히 김정일 저작이 뚜렷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논증은 김병로(1993. 12), pp. 11~12 참조.

30) 분류항목을 추가한다면, 경제사와 관련된 단행본과 한국경제와 관련된 단행본을 들 수 있다.

31) 아래 <참고문헌> 참조.

교재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업, 노동행정, 경제관리에 관한 저서들이 부문별·영역별 이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은 북한 경제현실과 관련하여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학 전문학술지로는 『경제연구』가 있다. 연 4회 발간되는 『경제연구』는 1973년 경에 창간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³²⁾ 『경제연구』 이외에 경제와 관련한 논문을 게재하는 신문으로는 『로동신문』이 있으며, 잡지로는 『근로자』, 『인민』, 『로동자』, 『경제건설』, 『경제지식』 등이 있다.³³⁾

북한의 경제학 문헌 중 북한 경제학 체계 및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 북한의 경제용어에 대한 정의·해설을 담고 있는 『경제사전』을 들 수 있다. 『경제사전』은 1970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으며, 15년 뒤인 1985년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되었다. 『경제사전』의 목적은 경제이론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경제관리의 과학화를 포함한 이론실천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상이론수준과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이는 것이다.³⁴⁾ 이런 의미에서 『경제사전』은 북한 경제학의 사전적 총괄이다.³⁵⁾

북한의 경제학 문헌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경제학 연구방법의 특성과 함께 북한 경제학 자체의 특성을 드러내 보여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현상은 경제·경제학에 관련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32) 『경제연구』의 누계가 처음 표기된 것은 1989년 제1호이며, '루계 제62호'로 되어 있다. 또한 1989년 이후 『경제연구』는 누락없이 매년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이에 근거해서 추정할 때, 1973년 하반기에 『경제연구』가 출판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33) 북한에서 발간되는 잡지들의 현황에 대해서는 『조선중앙년감』을 참조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근로자』에 대한 해제로서는 이교덕(1995) 참조.

34) 『경제사전(1970)』, 머리말, 『경제사전(1985)』, 머리말 참조.

35) 『경제사전(1970)』은 약 1900여 개의 울림말(표제어)을, 『경제사전(1985)』은 약 3,100여 개의 울림말을 담고 있다.

‘지적’이 우선적으로 인용되면서, 모든 경제이론은 이들 지적에 대한 교조적 해석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사회주의체제에서 전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특히 심하다. 이는 북한의 경제학 연구가 북한 사회의 객관적 현실로부터 괴리되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낙후된 지배담론으로만 존속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결국, 북한의 경제학은 현실과 괴리된 김일성의 지도원리를 해석해 내는 하나의 추상적·폐쇄적 관념체계에 머무르고 만다.³⁶⁾

단행본과 관련하여 드러나는 현상은 단행본의 집필자와 함께 심사자와 편집자가 대부분의 단행본의 경우 명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학이 집단적 연구작업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경제학이 집단적 연구작업의 결과라는 사실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경제학 연구에 다수의 경제학자가 참여한다는 데 있지 않고,³⁷⁾ 경제학 연구가 사회적 통제를 위한 지배담론을 공동으로 생산해 내는 과정이라는 데 있다. 경제학 연구가 지배담론을 생산해 내는 과정이라는 점은 김일성의 견해가 교조적으로 인용·해석되며 나아가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에서 연구집단이 공동으로 연구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북한에서 공동연구는 개인들의 창의력을 모으는 과정이 아니라, 연구작업에서 개인들의 사상·이론적 이탈을 견제하는 과정으로 작동한다.

북한의 경제학 논문과 관련하여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논문들은 이론적 측면보다는 이념적 측면과 실천적·실용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이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초

36) 이는 북한의 경제학이 마치 보르헤스의 소설 “틀린, 우크바르, 오르비스 메르미우스”에 나오는 가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틀린의 백과사전』과도 같음을 시사해 준다.

37) 자유주의 사회의 경우에도 학문분야에서 집단적 연구는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학파가 형성되기도 한다.

경제학으로서 정치경제학이 주체사상의 확립에 기여하고 응용경제학이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성공적일 수 있으나, 북한 경제학이 이론적 자기반성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이론이나 패라다임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는 막혀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북한 경제학의 연구방법을 살펴볼 때, 북한 경제학의 폐쇄성은 자기재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그 결과 북한 경제학은 정체하거나 퇴보할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2. 문헌에 나타난 경제학의 변화

경제학 연구방법에서 나타나는 북한 경제학의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학은 약 50년이란 기간동안 일정한 변화를 겪었다. 변화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경제학의 연구대상에서 일정한 변화가 감지된다. 둘째, 경제학 분야 중 초기에 경시되거나 부정되었던 분과들이 후기에 들어와 새로운 조명을 받기 시작한다. 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자료로서 김일성 저작에 나타난 경제 관련 논문들, 북한 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근로자』에 나타난 경제 관련 논설들,³⁸⁾ 1970년과 1985년에 각각 편찬된 『경제사전』을 들 수 있다.

김일성 저작과 『근로자』에 나타난 경제 관련 논문은 북한 지도부의 북한 경제에 대한 지도이념과 정책방향을 나타내 보여준다. 북한 경제

38) 북한에서 '론설'은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본질적내용, 그의 합법칙성과 현실적해결방도를 리론적인 분석과 론증을 통하여 밝히는 기사"이다. '론설'은 '업적과 경험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나서는 현실적 문제들에 리론적해답'을 줌으로써, 북한 경제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북한에서 경제학(기초경제학·응용경제학)과 경제 관련 '론설'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론설의 중요한 특성은 론리적인 분석과 일반화를 통하여 설정된 문제의 본질과 내용, 그의 합법칙성과 현실적해결방도를 해명하며 사람들을 리론적으로 납득시킨다는데 있다."(강조 필자) 『백과전서』 2권, p.481.

학이 근본적으로 이념과 정책의 양 측면 모두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김일성 저작과 『근로자』에 나타나는 경제 관련 주제는 북한의 경제학이 어느 분야에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가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³⁹⁾

김일성 저작과 『근로자』의 주제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서는 두 문헌에 게재된 경제 관련 논문의 주제를 대주제와 소주제로 분류한 다음, 시기별로 주제와 관련된 논문의 수를 분석해 보았다. 김일성 저작의 경우에는 시기를 다섯으로 대주제를 여섯으로 구분하여,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기와 대주제를 모두 넷으로 구분하여 주제변화의 경향을 살펴보았다.⁴⁰⁾

39)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근로자』가 갖는 중요성에 대하여는 이교덕(1995)을 참조할 것. 이교덕(1995)에 따르면, 선동선전자적 기능을 첫 번째 임무로 하는 『근로자』의 논문은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매 시기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당의 기본의식을 대변하고” 있다.(p.5) 『근로자』가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근로자』가 중시하는 주체사상 선전의 목적은 “당 정책이란 주체사상을 기초로 수립될 뿐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전술이고 또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곧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당 정책, 특히 당 경제정책에 대한 이론선전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pp.24~25)

40) 김일성 저작의 논문분류는 김병로(1993.7)의 연구에 기초하였다. 김병로(1993.7)는 『김일성 저작집』 38권까지를 다루었으므로, 39~44권의 분류는 필자가 추가하였다. 『근로자』의 논문분류는 이교덕(1995)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교덕(1995)은 1962년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간행된 『근로자』 중 입수가 가능한 314권(총 403권 중)을 분석하였다. 두 연구자의 분류기준이 다소 차이가 나므로 양 문헌에 나타나는 경향이 일대일 대응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주제변화의 경향을 고찰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두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 관련 논문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표 2> 김일성 저작 경제분야 주제별·시기별 논문 분포

(단위: 개, %)

주제분류		30.6~ 53.7		53.8~ 60.12		61.1~ 70.12		71.1~ 80.12		81.1~ 94.7		전시기	
대분류	소분류	논문 수	백분 율	논문 수	백분 율	논문 수	백분 율	논문 수	백분 율	논문 수	백분 율	논문 수	백분 율
경제계획· 경제통계		4	5.9	8	6.3	13	9.9	8	5.1	14	13.1	47	7.8
농 임 수 산 업	농업	17	25.0	32	25.0	24	18.3	42	26.8	14	13.1	129	21.8
	임업	-		4		2		1		1			
	수산업	1		8		6		13		9			
	소계	18	26.5	44	34.4	32	24.4	56	35.7	23	21.5	173	29.3
광 공 업	일반	5		5		14		6		6			
	광업	3		5		7		6		8			
	전력공업	1		2		4		7		5			
	금속공업	1		13		5		2		5			
	기계공업	1		3		4		8		5			
	화학공업	2		2		3		7		9			
	건재공업	-		1		5		3		-			
	경공업	2		3		7		6		7		25	
	지방공업	2	5.9	8	8.6	3	7.6	4	6.4	6	12.1	23	8.1
	소계	17	25.0	38	29.7	43	32.8	42	26.8	50	46.7	190	32.1
상 업 · 서 비 스	상업	-		4		4		5		-			
	금융·재정	6		6		3		11		-			
	교통·운수	10		8		4		9		3			
	통신	5		2		1		1		-			
	건설업	2		10		8		2		1			
	국토관리	3		2		6		5		6			
	도시계획	-		1		2		7		1			
	소계	26	38.2	33	25.8	28	21.4	40	25.5	11	10.3	138	23.4
대외무역		1	1.5	2	1.6	5	3.8	5	3.2	7	6.5	20	3.4
노동행정· 노동관리		2	2.9	3	2.3	10	7.6	6	3.8	2	1.9	23	3.9
총계		68	100	128	100	131	100	157	100	107	100	591	100

* 자료: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39~44권; 김병로, 『김일성저작 해제』(서울: 민
족통일연구원, 1993).

** 소계 및 총계의 경우, 중복으로 인하여 숫자가 감소한 경우도 있음.

<표 3> 『근로자』 경제분야 연대별·주제별 논술 분포 (단위: 개, %)

주 제 분 류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전시기	
대분류	소분류	논설 수	백분 율	논설 수	백분 율	논설 수	백분 율	논설 수	백분 율	논설 수	백분 율
경제 건설 일반 론	경제목표달성촉구	17		19		42		1		79	10.9
	당의 경제사업지도	10	7.5	13	7.1	39	11.2	3	4.9	65	9.0
	국가규모 경제관리	5	3.7	11	6.0	26	7.5	7	11.5	49	6.7
	경영활동개선	10	7.5	15	8.2	30	8.6	11	18.0	66	9.1
	경제적 태도	3		5		4		4		16	2.2
	경제부분 대중운동	3		7		15		1		26	3.6
	경제계획·경제통계	5		10		16		2		33	4.5
	소계	53	39.6	80	43.5	172	49.6	29	47.5	334	46.0
농림 수산업	농업일반	5		16		11		3		35	4.8
	사회주의농촌건설	20		17		31		6		74	10.2
	임·수산·축산업	5		3		6		-		14	1.9
	소계	30	22.4	36	19.6	48	13.8	9	14.8	123	16.9
광공 업	공업화일반론	10	7.5	5	2.7	6	1.7	1	1.6	22	3.0
	광업	4		8		3		2		17	2.3
	공업	전력공업		3		6		2		12	1.7
		금속공업		1		4		-		6	0.8
		기계공업		1		5		1		10	1.4
		화학공업		1		2		1		5	0.7
		건설공업		-		-		-		2	0.3
		정공업		2		10		2		15	
	지방공업	1	1.5	4	3.3	8	5.2	4	9.8	17	4.4
	소계	24	17.9	25	13.6	44	12.7	13	21.3	106	14.6
	과학기술	10	7.5	18	9.8	27	7.8	2	3.3	57	7.9
	상업	2		-		2		2		6	0.8
기타	분배	2		1		3		1		7	1.0
	재정·금융·예산	2		3		8		-		13	1.8
	교통	1	0.7	8	4.3	8	2.3	1	1.6	18	2.5
	건설	4		2		4		1		11	1.5
	국토관리	1	0.7	7	3.8	12	3.5	-	1.6	20	2.8
	노무행정·노무관리	5		4		8		3		20	2.8
	대외무역·경제협력	-		-		11		-		11	1.5
	소계	17	12.7	25	13.6	56	16.1	8	13.1	106	14.6
총 계		134	100.1	184	100.1	347	100.0	61	100.0	726	100

* 출처: 이교덕,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p.55 & p.57.

<표 2>와 <표 3>에 따르면, 김일성 저작과 『근로자』에 게재된 경제 관련 논문·논설의 주제변화 경향은 몇 가지 사실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 경제계획 및 경제건설 일반에 대한 논문·논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⁴¹⁾ 특히, 80년대에 들어오면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조한 논문·논설이 늘어난다. 이 점은 북한의 경제학이 주체 사상의 강조와 함께 이론적 측면보다는 이념적·사상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⁴²⁾ 둘째, 농업분야에 대한 강조가 80년대 이후로 떨어지고 있다. 1964년 김일성의 “우리나라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됨에 따라 70년대까지 농업문제에 관한 연구가 북한에서 활발하였다.⁴³⁾ 셋째, 80년대 이후부터 인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경공업 및 지방공업에 대한 논문·논설이 증대한다. 이는 북한 인민생활이 궁핍해짐에 따라 당의 관심이 인민생활에 점차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상업·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대외무역에 대한 관심은 80년대부터 급속도로 증가한다. 이는 북한의 경제정책이 80년대부터 대외개방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⁴⁴⁾

김일성 저작과 『근로자』에 실린 경제 관련 논문·논설의 주제에서 나타나는 변화경향은 북한 경제학이 이념·정책과 직접 관련하여 주로 다룰 대상영역에서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경제사전』에서 발견되는 변화는 북한 경제학의 이론영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

41) 김일성 저작의 경우 1970년대에 경제계획·경제통제로 분류되는 주제의 빈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김정일의 저작 중 이 시기에 나타난 경제 관련 논문 총 10편 가운데 8편이 경제건설 일반 및 당의 경제에 대한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향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병로(1993.12) 참조.

42) 『근로자』의 소분류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참조할 것.

43) 그러나, 1985년 이후 다시 김일성 저작에서 농업에 관한 강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식량문제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일성 저작집』 39-44권 참조.

44) 『경제연구』에서도 1990년대 초부터 대외무역에 대한 논문이 증가하고 있다.

로 판단된다. 북한이 1970년과 1985년 두 번에 걸쳐 편찬한 『경제사전』은 경제학의 변화와 관련하여 두 개의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다.

첫째, 1970년판 『경제사전』에 표제어로 나타나지 않았던 경제수학적 모형, 경제수학적 모형화, 경제수학적 방법, 선형계획법, 수리계획법, 수리통계학, 수리학과, 수리운영학 등의 용어들이 1985년판 『경제사전』에 등장한다. 이는 계획의 과학화·단일화를 강조하는 북한 지도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북한 경제학에서 경제수학 혹은 수리적 방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밑에는 경제학에 대한 북한 경제학자들의, 아니 북한 지도부의 태도변화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경제사전(1970)』에 표제어로 올라있던 ‘경제통계학’ 항목에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게 되고 생산에 참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계획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통계학의 새로운 한 부문으로 (경제통계학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르조아변호론자들이 말하는 <경제통계학>이란 <수리경제학> 또는 <수리통계학>의 한 분과에 지나지 않으며 경제현상을 수학공식에 맞추거나 수학의 경제분야에의 적용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는데 복무하고 있다”고 강조한다.⁴⁵⁾ 그러나, 『경제사전(1985)』에 ‘경제통계학’ 대신에 표제어로 올라있는 ‘수리통계학’ 항목에서는 “수리통계학이 지난 시기 사건들의 결과를 분석한 데 기초하여 외부적조건이나 내부적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 연구하려는 현상이 앞으로 확률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겠는가 하는것을 내다볼수 있게 한다는것은 경제실천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수리통계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⁴⁶⁾ 경제수학 혹은

45) 『경제사전(1970)』, 1권, pp.96~97.

46) 『경제사전(1985)』, 2권, p.93. 경제학에 있어서 수학적 방법이나 수리적 방법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수리운영학’, ‘경제수학적모형화’, ‘경제수학적방법’ 등의 항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수리적 방법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경제학 전문잡지라고 할 수 있는 『경제연구』에서도 1990년대부터 관련 논문들이 등장한다.⁴⁷⁾

둘째, 경영학 일반과 경영조종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기업소 관리의 과학화를 강조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논설에서 경영활동개선에 대한 논설이 꾸준히 증대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증대하는 것도 이러한 경향의 반영으로 보여진다.

경제수학, 수리적 방법, 경영학 일반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북한에서 점차적으로 경제이론이 가진 중립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유추해 본다면, 이념과 정책 사이에서 독자적 영역을 가지지 못하던 경제이론이 북한 경제의 침체와 함께 북한 지도부로부터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IV. 북한 경제학 체계의 기초부문 :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

북한의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분과는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과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이다. 북한 경제학 분류에서 본다면,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사회주의 경제의 전반적 영역뿐만 아니라 기본 분야에서 작용하는 법칙과 범주를 다루는 일반경제학으로서 전문경

47) 김용철, "경제수학적방법에 의한 생산계획작성은 경영활동의 과학화, 합리화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1990년 제4호; 윤재창, "경제수학적방법의 리용은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과학화하기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1991년 제3호; 한철, "경제과정의 특성과 수학적방법," 『경제연구』 1991년 제4호; 리학주, "경제동태 모형화방법과 그 역할," 『경제연구』 1992년 제3호; 태광용, "경제수학적방법의 리용은 생산력배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1994년 제2호 참조.

제학과 부문경제학의 바탕이 되며, 또한 기초경제학으로서 응용경제학의 출발점이 될 이론적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응용경제학에 속하는 '주체의 경제관리론'은 전문경제학 분야에 속하는 경영학의 일반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영학이 실제적으로 각 부문에서 사용되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부문경제학에 해당하는 공업경영학과 농업경영학의 원리를 설명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각각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과 '주체의 경제관리론'의 구성과 주요 명제를 살펴볼 것이다.

북한 정치경제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저서는 리기성에 의해 집필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1) : 사회주의경제의 전반적영역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와 한득보에 의해 집필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2): 사회주의경제의 기본분야들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이다.⁴⁸⁾ 모두 1992년에 출판된 두 저서는 시기적으로 볼 때 북한 정치경제학의 최근 이론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두 저서를 중심에 놓고 북한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구성과 특성을 파악하려고 할 것이다.⁴⁹⁾

사회주의 경제의 전반적 법칙을 다루는 『법칙과 범주(1)』은 방법론,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기본방식,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활동의 과도적 특성이라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⁵⁰⁾ 사회

48) 이하에서 두 저서는 각각 『법칙과 범주(1)』, 『법칙과 범주(2)』로 표기함.

49) 북한에서 발간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과 관련된 개괄적 이론서 중 입수된 저서는 최중극,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 연구』(1978), 최중극, 『과도기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1987), 최중극, 『사회주의경제와 균형』(1990), 김원삼·한득보,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연구에서의 몇가지 이론문제』(1987)이다. 필자는 『법칙과 범주』를 기본 텍스트로, 여타 저서를 부수적 텍스트로 파악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50) 『법칙과 범주(1)』을 구성하는 네 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사람중심의 사회주의 경제법칙 연구의 방법론적 기초(1편); 사회주의사회에서 주체의 경제활동의 기본법칙.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2편);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기본방식,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3편);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활동의 과도적특성,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4편).

주의 경제의 기본 분야들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를 다루는 『법칙과 범주(2)』에서 다루는 주요 이론은 사회주의노동이론, 생산·분배·유통·소비이론, 사회주의적 재생산론이다.⁵¹⁾ 『법칙과 범주』 1권과 2권에 나타난 경제이론을 총괄해 볼 때, 북한의 정치경제학은 방법론,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에 관한 이론, 사회주의 경제발전에 관한 이론으로 나누어진다.⁵²⁾

1. 북한 정치경제학의 방법론 - 주체의 정치경제학

북한 정치경제학의 핵심적 저서라고 할 수 있는 『법칙과 범주』는 우선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라는 제목 자체에서부터 북한 경제학의 기본 특징, 혹은 방법론적 기초를 보여준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경제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경제현상에서 나타나는 합법칙성을 중시한다. 다시 말해, 주체의 정치경제학은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경제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밝혀낸다. 나아가 주체의 정치경제학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낸다는 뜻에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다. 리기성의 저서는 책의 머리말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

51) 『법칙과 범주(2)』는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근로자들의 노동활동의 중요 법칙과 범주들(1편);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합법칙성(2편); 사회주의하에서 분배관계를 규제하는 법칙과 그 실현의 체계와 형태(3편); 사회주의하에서 사회생산물유통의 체계와 그 실현형태(4편); 사회주의하에서 인민소비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5편); 사회주의적재생산의 중요 법칙과 범주들(6편).

52) 방법론은 1권의 제1편에 해당한다.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에 관한 이론은 1권의 2편과 4편, 2권의 1~5편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발전론은 1권의 3편과 2권의 6편에서 다루어진다.

한 그의 창조적사명에 맞게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준다.”⁵³⁾

주체의 정치경제학에서 법칙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법칙’으로, 범주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본질적 특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⁵⁴⁾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법칙’이라는 개념은 ‘생산관계 및 경제관계의 법칙’과 구분되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정치경제학은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하고 발전하는 사람의 활동법칙, 사회경제적 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경제활동법칙’을 강조한다.⁵⁵⁾ 달리 표현한다면, 정치경제학의 주체적 방법론은 생산, 분배, 유통, 소비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범주에 대한 해명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러한 범주적 활동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밝혀내며, 나아가 경제법칙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의식적 활동을 중시한다.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출발점에서부터 이념과 실천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내어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적의식적 활동에 기여한다는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특징은 경제법칙에 대한 좀더 분명한 개념분석을 요구한다. 경제법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칙과 범주(1)』은 ‘자연의 운동’과 ‘사회의 운동’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강조한다. 자연과 사회는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운동하는 물질적 존재이며, 자연의 법칙이나 사회의 (경제)법칙은 사람의 의식 또는 주관과는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필연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경제법칙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사회적속성으로 하는 자주적존재인 사람의 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법칙이라는 점에서 자연의 법칙과 질적으로 구분된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경제적운동에서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을 직접 규제한다.”⁵⁶⁾ 여

53) 리기성(1992), p.8.

54) 한독보(1992), p.8.

55) 리기성(1992), p.9.

기에서 북한의 정치경제학은 '경제법칙의 객관성'과 '사람의 자주성·창조성·의식성에 의한 경제활동의 규제'라는 두 명제간에 존재하는 이론적·철학적 긴장을 명확하게 해결해 내어야 한다.

자연법칙과 경제법칙간의 차이를 강조할 때, 경제법칙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소는 객관적 요인⁵⁷⁾보다는 주체적 요인이다. “경제법칙의 객관성과 필연성에는 사람의 경제활동의 조건과 환경만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사람자체의 사회적숙성이 관계된다.”⁵⁸⁾ 다시 말해, 생산관계·경제관계의 객관적 법칙이 이론적으로 선행하고 사람들은 경제적 요구와 이익에 따라 경제법칙을 인식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경제적요구와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생산, 분배, 교환, 소비 활동의 합법칙성이 규제되는것자체가 현실적이며 객관적인 것이다.” 따라서 “주체적성격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작용하는 경제법칙의 인식리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경제적 요인과 현상들의 본질적련관의 필연성과 사람들의 활동원칙, 행동방도의 통일에 관한 문제이다.”⁵⁹⁾ 이렇게 볼 때, 자연법칙과 경제법칙을 구분하는 주체의 정치경제학은 궁극적으로 경제현상(현상 또는 객관)과 경제과학(인식 또는 주관)간의 통일(경제운동의 존재론적 측면), 객관적 법칙의 인식(이론)과 행동을 통한 법칙의 규제(실천)간의 통일(경제법칙의 인식론적 측면)을 추구한다. 결국 비록 전통적인 객관과 주관의 구분이라는 철학적 용어에 의해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체의 정치경제학이 내세우는 사람의 자주성·창조성·의식성에 기초한 객관(필연성)과 주체(목적의식성)간의 통일이라는 명제가 주체사상의 인간중심주의라고 불리는 밀교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이다.

56) 『법칙과 범주(1)』, p.27.

57) 객관적 요인은 물질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조건은 생산관계, 경제관계, 사회적 역량관계로 구성된다. 『법칙과 범주(1)』, pp.22~26.

58) 『법칙과 범주(1)』, p.28.

59) 『법칙과 범주(1)』, p.28. 인용문의 강조는 필자의 것임.

그러나, 주체의 정치경제학이 추구하는 객관과 주관의 경계를 허물어 뜨린 위에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세워진 경제과학은 실재에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동요하는 불안정한 이념체계이다. 한편으로 북한의 경제학은 경제법칙의 과학적 인식에 기초하여 경제법칙의 요구에 따라 활동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제법칙의 성과적 구현'을 강조하는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경제학이 일종의 정책과학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⁶⁰⁾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경제학은 '경제법칙이 경제적 운동에서 사람들이 제기하는 경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인민들의 목적의식적 활동을 강조한다.⁶¹⁾ 이에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객관적 경제법칙에 대한 과학이론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경제현실로 파악하는 이념체계로 편향될 가능성을 지닌다. 결국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정책과학과 이념체계라는 양 극단적 경향 사이에서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면서, 경제과학이 밝혀야 할 경제법칙의 복잡성을 '객관적 과정으로서의 경제적 운동의 필연성'과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원칙, 방도로서의 필연성'간의 통일이라는 추상적 명제로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다.⁶²⁾

60) 『법칙과 범주(1)』, p.28.

61) 『법칙과 범주(1)』, p.29.

62) 혹은 "경제적운동의 본질적이며 필연적인 과정이 곧 사람의 경제활동의 원칙, 방도로 된다"는 주체의 경제원리로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법칙과 범주(1)』, pp.29~30. 또는 좀더 절충적인 태도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참고: "물론 경제법칙도 법칙일반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성격을 가지는것만큼 사람이 그것을 자의대로 없애거나창조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세우고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벌리는 조건에서만 발생하고 작용한다. 사람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경제활동을 벌리지 않는다면 경제법칙은 존재할수 없다." 『법칙과 범주(1)』, p.120. 북한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기에서 강조해 두어야 할 것이다.

2.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 - 자립적 민족경제론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을 밝혀내고, 이에 기초하여 국가에 의한 경제계획의 필연성과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정당화한다.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은 소유의 사회화에 기초하여 경제활동의 통일성·계획성⁶³⁾을 달성하는 원리이다.

소유의 사회화는 경제법칙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이다. 특히,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사회경제적운동이 주체의 운동이고 경제법칙이 사람의 경제활동 법칙인것만큼 인민대중의 자주적경제활동에서 경제적리해관계는 기초적인 관계의 하나로 된다.”⁶⁴⁾ 사회주의 경제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전사회적 이해관계, 집단적 이해관계, 개인적 이해관계로 구분되거나, 사회계급적 구조를 반영하여 노동계급과 협동농민의 이해관계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이해관계들은 사회주의의 과도적 성격으로 인하여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생산집단들의 수요의 충족과 그 가 전인민적리해관계의 물질소재적 표현인 최종인민경제적결과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직접 연관시킨 기초우에서 사회적으로 실현된다.”⁶⁵⁾ 결국,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의 첫째 원리는 ‘이해관계체계의 내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서로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 형태들의 유기적 통일’이라는 집단주의 원리이다.⁶⁶⁾

사회주의 경제에서 집단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

63) 『법칙과 범주(1)』, p.167.

64) 『법칙과 범주(1)』, p.31.

65) 『법칙과 범주(1)』, p.44.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의 특성은 ①인간의 본성적 요구의 완전 구현, ②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유기적 통일(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③생산적·비생산적 수요의 통일, ④전사회적 이익의 달성에 집단 이익의 달성 및 집단이익의 달성에 개인 이익의 달성으로 요약된다. 『법칙과 범주(1)』, pp.35~40.

66) 『법칙과 범주(1)』, p.49.

일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가 필수적이다.⁶⁷⁾ 이는 사회주의 경제하에서 집단적, 개인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자립적이라는 점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가 경제조직자의 기능을 가지고 개별적 생산집단과 근로자들의 창조적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⁶⁸⁾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국가는 소유의 사회화를 기초로 하여 노동의 사회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방안이 곧 계획화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자극'이다.⁶⁹⁾

소유의 사회화와 노동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사회는 두 가지 성과를 가져온다. 첫째, 소유의 사회화와 노동의 사회화는 유기적 연관하에 발전함으로써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한다. 둘째, 그 결과 분업, 협업, 분배 관계에서 합리적 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 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전면적으로 실현된다.⁷⁰⁾ 이러한 성과를 통해 사회주의 사회는 착취를 종식하고 이해관계를 분열·대립·투쟁의 관계로부터 협조·통일·단결의 관계로 변화시킨다.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한 사회주의 사회의 우월성이 있는 것이다.⁷¹⁾ 그

67)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각이한 경제적리해관계형태들의 합리적결합의 필연성과 가능성을 규정하고 그 통일성의 실현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되게 한다." 『법칙과 범주(1)』, p.52.

68) 이는 곧 국가의 계획적 지도와 개별 집단·개인의 창발성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법칙과 범주(1)』, pp.53~54.

69)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자극은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으로 구분되지만,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보다 귀중한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이다." 『법칙과 범주(1)』, pp.55~57.

70) 『법칙과 범주(1)』, pp. 61~76. 한편, 수요와 공급은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수요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경제적 요구와 리해관계를 직접 반영한 경제범주이며 공급은 수요충족을 위한 물질적재부의 보장을 반영한 경제범주이다." 『법칙과 범주(1)』, p.70.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의 차이는 가치법칙(자연발생적 법칙)과 계획법칙의 대립에 의해 설명된다. 『법칙과 범주(1)』, pp.71~72.

리고 이러한 이유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인민대중에 의한 국가주권의 '전취' 못지 않게, 생산수단의 '전취'를 강조한다.⁷²⁾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 경제법칙으로부터 도출하는 경제체계는 '인민경제의 주체성이 확고히 보장되는 자립적민족경제체계'이다.⁷³⁾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이 구현되는 경제, 다시 말해 인민대중의 자주적 본성이 구현되는 경제체계인 자립적 민족경제체계가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의 요구실현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체계가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에 맞게 매개 나라와 인민의 물질적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키고' 또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높이 발양되는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비롯하여 사회적생산발전의 모든 주체적 및 물질적 요인들의 전면적강화에 의거하는' 경제체계이기 때문이다.⁷⁴⁾ 이처럼 소유의 사회화, 노동의 사회화에 기초하여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은 자립적 민족경제체계를 궁극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이론적 체계를 완성한다.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법칙체계에서 전반적 영역의 법칙과 함께 중요한 것은 주체의 경제활동의 기본 분야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이다. 재생산의 기본 영역이라고도 불리는 경제활동의 기본 분야는 생산, 분배, 교환, 소비이다.⁷⁵⁾

생산은 자연을 개조·변혁하여 물질적 부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가리키는 범주이다. 북한의 경제학이 "경제는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

71) 『법칙과 범주(1)』, p.88.

72) 『법칙과 범주(1)』, pp.85~86.

73) 『법칙과 범주(1)』, p.279.

74) 『법칙과 범주(1)』, pp.279~284.

75) 생산, 분배, 교환, 소비라는 경제활동의 주요한 네 범주는 장-바티스트 세에 의해 정식화된 이후 현대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맑스에 의하면 이러한 범주적 구분은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를 막는 인식론적 장애물이다. Marx(1977) 참조. 이런 점에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맑스주의 전통보다는 고전과정치경제학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보여진다.

의 창조적 활동분야이며 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를 이룬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 "사회주의사회는 자기의 선진적인 사회제도에 상응하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그 면모를 완전히 갖추어 있다"⁷⁶⁾고 주장하는 점에서, 생산은 주체의 경제활동에서 최우선 분야인 동시에 주체의 정치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분야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과 관련한 주요 경제법칙으로는 "로동생산능률의 끊임없는 장성의 법칙,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 생산수단생산의 우선적장성의 법칙,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균형법칙, 사회주의적축적의 법칙, 사회적생산의 집약적발전의 합법칙성" 등이 있다.⁷⁷⁾

분배, 교환, 소비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생산에 이어지는 재생산의 순차적 국면들이다. 분배는 생산과 교환·소비를 연결하는 경제활동이다. 분배와 관련한 경제법칙으로는 '축적과 소비의 균형법칙,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 국가적·사회적 혜택에 의한 균형적 분배법칙' 등이 있다.⁷⁸⁾ 자본주의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분배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조화로운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범주이다. 교환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기본 법칙 및 과도적으로 상품화폐관계에 의해 규제되는 생산물의 유통과정에 의해 실현된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교환은 '계획성과 등가성의 호상관계의 합법칙성, 생산수단과 소비재류 통제제와 그 실현의 합법칙성'에 의해 실현된다.⁷⁹⁾ 마지막으로 사회주

76) 『법칙과 범주(1)』, p.92.

77) 『법칙과 범주(1)』, p.134. 『법칙과 범주(2)』 제2편 참조. 생산영역에서 작동하는 법칙에 대해서는 '4장 다절' 사회주의 경제발전론에서 좀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78) 『법칙과 범주(1)』, p.134. 『법칙과 범주(2)』 제3편 및 황경덕, 『절약과 저축』 (1958) 참조.

79) 공산주의 경제와 비교할 때, 사회주의 경제에서 분배와 교환은 사회주의의 과도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분배의 경우에는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이, 교환의 경우에는 계획성(계획경제에 기초한 법칙)과 등가성(상품화폐관계에 기초한 법칙)의 상호관계에 의거한 교환법칙이 그것이다. 『법칙과 범주(2)』 제4편 및 『김일성 저작집』 23권,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과학교육부문일군들

의 경제에서 소비는 생산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재생산의 고리로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근본적 우월성을 가장 뚜렷이 반영하는 범주이다. '상품에 의한 상품생산' 혹은 '이윤을 위한 생산'이라는 경제적 개념으로 표현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소비가 생산에 의해 좌우되는 활동이라면,⁸⁰⁾ 사회주의 경제에서 소비는 주체의 요구가 최종적으로 달성되는 경제범주로서 경제활동의 의식적 출발점이자 실질적 종착점이 된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소비는 "수요와 공급의 적용의 법칙, 소비의 사회화의 합법칙성, 소비의 량과 질, 소비수준의 끊임없는 고르로운 성장을 포괄하는 인민들의 소비적수요충족의 합법칙성, 물질적소비와 봉사소비 발전의 합법칙성"에 의하여 규제된다.⁸¹⁾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분야들에서 작용하는 법칙은 전반적 영역에서 작용하는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에 의해 제약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은 자신의 직접적 발현형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기본 분야에서 작용하는 특수경제법칙을 매개로 한 간접적 발현형태를 통해서 사회주의 경제법칙 체계의 전일성과 통일성을 보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위에서 살펴본 생산, 분배, 교환, 소비 각 범주에서 제시된 법칙들은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이 각 경제활동범주에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경제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⁸²⁾

3. 사회주의 경제발전론 -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법칙

사회주의 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 중 전반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는 앞 절에서 살펴본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과 사회주의 경제발

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69년 3월 1일", pp.444~470.

80)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다소 단순화된 고전파정치경제학의 원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81) 『법칙과 범주(1)』, p.135. 『법칙과 범주(2)』 제5편 참조.

82) 『법칙과 범주(1)』, pp.233~241.

전법칙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활동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과 형태를 규제하는 경제발전법칙의 핵심적 내용은 계획성과 균형성으로써, 이에 기초하여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와 노동생산능력의 부단한 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이론적 방안을 제시한다.⁸³⁾ 다시 말해,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법칙으로 요약되는 북한 경제발전론의 핵심은 현실적 조건에 맞게 경제발전의 목표를 정하고 경제발전과정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경제발전법칙에서 가장 우선되는 문제는 사회적 생산에 대한 총체적 조절의 '방향성 규제'이다.⁸⁴⁾ 방향성 규제는 '생산과 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부문들사이, 재생산요소들사이의 높은 균형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생산조절의 구체적 내용은 합리적·적극적 균형을 설정해 나가는 데 있지만, 균형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높은 속도의 요구에 맞는 균형의 설정'이 좀더 필수적이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속도가 목적이고 균형은 수단이다.⁸⁵⁾

사회주의 경제발전에서 방향·속도·균형의 통일은 사회적 수요와 사회적 생산구조의 조절이라는 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회적 수요에 맞는 생산요소의 조절은 두 측면에서 분석된다. 첫째는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사이의 균형, 둘째는 국민소득에서 축적과 소비 사이의 균형이다.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사이의 균형은 중공업과 경공업·농업의 합리적 결합에 의해 달성되며, 여기에서 "생산수단생산의 우선적 장성과 함께 소비재생산의 동시적발전" 혹은 "중공업의 우선적장성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발전"이라는 북한의 발전전략이 도출되고 있다.

83) 『법칙과 범주(1)』, p.131.

84) 『법칙과 범주(1)』, p.211.

85)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경제발전의 목표는 인민대중의 공동 이익 구현과 '경제발전목표가 좀더 높은 수준에서 끊임없이 갱신되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법칙과 범주(1)』, p.332.

축적과 소비 사이의 균형은 확대재생산과 당면한 소비와의 균형, 혹은 축적фон드와 소비фон드의 균형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도 '축적을 우선적으로 빨리 늘이면서 소비를 동시에 늘인다'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속도가 목표이고 균형이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은 생산재의 급속한 생산과 축적фон드의 증대를 강조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북한은 '등가적 형태'에 의거한 부문간 연계성보다는 계획성에 기초하여 국가가 부문간의 관계를 직접 설정하는 '비등가적 형태'에 의거한 부문간 연계성에 기초하여 사회의 생산구조를 조절해 간다.⁸⁶⁾ 끝으로 사회주의 발전법칙으로부터 나오는 다른 중요한 두 법칙은 '선행경제부문 발전의 합법칙성'과 '사회주의 인민경제 내 지역간 균형적 발전 법칙'이다.

북한의 경제학 체계에서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법칙과 관련하여 지적해 두어야 할 점은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과 인민경제계획학 간의 관계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균형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기초경제학이자 일반경제학으로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 제시하는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법칙이지, 인민경제계획화 자체는 아니다.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은 인민경제계획화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기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경제학과 인민경제계획학의 관계는 일반법칙과 부분법칙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⁸⁷⁾

86) 계획적·균형적 발전법칙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법칙과 범주(2)』 제2편 "사회적생산발전의 합법칙성"과 제6편 "사회주의적재생산의 중요 법칙과 범주들", 최중국, 『사회주의경제와 균형』(1990) 제3장, 황경덕, 『절약과 저축』(1958)을 참조. 또한 『법칙과 범주(2)』 제1편에서는 노동활동을 중심에 놓고, 경제발전에서 노동생산능력의 성장이 차지하는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87) "사회주의계획경제법칙의 작용에 기초한 사회적생산의 계획적조직, 인민경제계획화자체는 인민경제적균형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지 못한다." 『법칙과 범주(1)』, p.216. "인민경제계획화에서는 경제발전의 계획성, 균형성의 보장을 규제하는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과 경제발전의 목적 및 성격을 규제하는

V. 북한 경제학 체계의 응용부문 : 주체의 경제관리이론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이론은 북한이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해결의 올바른 길을 밝혀 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이론이다.”⁸⁸⁾ 북한의 경제관리이론 분야에서 경제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주체의 경제관리이론』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리, 기본원칙, 경제관리체계, 경제관리방법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⁸⁹⁾

1. 기본 원리

북한의 경제학 체계에서 경제관리는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지휘하는 기능으로 정의된다. 특히 사회주의 경제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주의 경제관리는 사회적 생산활동의 조직과 지휘를 담당하는 기능이다.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국가가 사회적 생산활동의 조직자적 기능을 가지므로, 경제관리이론은 근본적으로 개별 생산단위에서의 관리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단위에서의 관리문제까지도 다룬다.⁹⁰⁾ 북한의 경제학 체계에서 경영학에 해당하는 경제관리이론은 단순히 기업의 경영학뿐만 아니라 국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의 요구를 먼저 타산하고 구현하게 된다.” 『법칙과 범주(1)』, p.384.

88) 『주체의 경제관리이론』, p.4.

89) 박영근·김철제·리해원·김하룡, 『주체의 경제관리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90)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이론은 ...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어나가는 위력한 사상이론적무기로 된다.” 『주체의 경제관리이론』, p.6.

가차원의 경영학을 포함하는 것이다. 둘째, 주체의 사회주의경제에서 경제관리는 경제법칙의 단순한 이용에 멈추지 않는다. 경제관리활동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운동에 능동적작용을 미침으로써 경제법칙의 작용조건을 크게 변화”시킨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경제관리는 경제법칙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패에 직접 관련된다.⁹¹⁾

사회주의 경제관리에 관한 이론의 전반적 체계와 내용을 관통하는 원리로 규정되는 주체의 경제관리이론은 ‘인민대중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라는 당위론적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실제적 주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목적론적 규범으로 완결된다.⁹²⁾ 따라서, 주체의 경제관리이론은 일반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이론이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구분되는 ‘전문적 경제지식과 기능’을 가진 경제관리일군을 강조하면서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인민대중의 근본 요구와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경제관리이론이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주인임을 강조하는 주체의 경제관리이론은 대중의 사상적 각성을 논의의 핵심고리로 파악한다. 인민대중의 사상적 각성이란 근로자가 자신을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 자각하고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식을 갖게 되는 현상이다. 자신을 주인으로 자각함에 따라 인민대중은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경제관리운영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증대하려고 노력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대중들 사이의 동지적 단결과 협조의 관계를 발

91)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사회주의 경제관리이론의 두번째 특징은 경제법칙과 경제행위간의 상호작용에 관련되어 있다. 만일 북한 경제학의 주장을 좀더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경제법칙의 ‘초월적 객관성’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그리고 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학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러한 북한 경제학의 관점은 주체사상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과 자연간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태도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92) 『주체의 경제관리이론』, p.7.

전시키게 된다. 그 결과 사회주의 경제는 급속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⁹³⁾

주체의 경제관리이론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⁹⁴⁾ 첫째는 경제관리에서 '정치적 지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것'이다. 이는 경제관리에서 노동계급의 당이 정치적 영도를 하여야 하며, 경제관리체제와 정치적 지도체제가 합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는 '혁명적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이는 "생산자대중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함을 의미한다.⁹⁵⁾ 셋째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소가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게 되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과 "로동의 결과에 따라 물질적관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로동에 의한 분배를 실시하게 되며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을 경제관리수단으로 리용하게" 됨을 의미한다.⁹⁶⁾

주체의 경제관리가 갖는 세 가지 특징은 집단주의와 사회적 유기체론⁹⁷⁾에 기초한 주체의 경제관리이론이 북한 경제의 과도적 성격에 의하여 가질 수밖에 없는 내적 긴장을 드러내 보여준다. 주체의 경제관리이론은 군중노선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당의 정치적 영도를 최우선 특징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으며, 또한 독립채산제, 노동에 따른 분배와 상품화폐관계·가치법칙을 경제관리수단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관리의 기본 원리에서 나타나는 내적 긴장은 아래에서 살펴볼 경제관리의 기본 원칙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93) 『주체의 경제관리이론』, pp.12~15.

94) 『주체의 경제관리이론』, pp.17~26.

95) 『주체의 경제관리이론』, p.23.

96) 『주체의 경제관리이론』, p.24. 『법칙과 범주(1)』는 또 다른 특징으로 "경제를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을 들고 있다(pp.107~110).

97)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는 인민경제의 개별적 부문들과 단위들을 전국적범위에서 하나의 생산유기체로 결합시킨다." 『주체의 경제관리이론』, p.41.

2. 기본 원칙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 원칙은 사회주의 경제지도관리체제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기본 문제들인 당의 영도와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 사이의 상호관계, 국가경제기관과 기업소 사이의 상호관계, 생산지휘자와 생산자대중 사이의 상호관계, 대중동원의 방법에 관한 원칙이다.⁹⁸⁾

당의 영도와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 사이의 상호관계는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의 옹은 결합'이라는 원칙으로 파악된다.⁹⁹⁾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당과 국가의 관계,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의 관계이다. 주체의 경제관리이론은 국가를 당의 영도를 실현하는 포괄적 정치조직으로 파악하고, "경제관리에서 정치적지도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바로 세우고 그 집행을 정치적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옹은 결합'은 당의 국가에 대한 우위에 기초한 정치적 지도의 경제기술적 지도에 대한 우위라는 원칙을 의미한다.

국가경제기관과 기업소 사이의 상호관계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의 옹은 결합'이라는 원칙으로 파악된다.¹⁰⁰⁾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대중의 공동 요구와 이익은 최고정치조직인 당에 의해 대변되므로, 당의 영도하에 국가가 경제조직자로 기능한다면 매개 경제단위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계획위원회 '지령적 계획'을 강조하는 주체의 경제관리이론에서 매개 단위

98) 이와 관련하여 『경제사전(1985) 1』은 경제관리의 기본 원칙과 관련하여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의 관철', '경제관리에서 과학성의 보장', '경제관리에서 당적지도',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 '경제관리에서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다섯 항목을 올림말로 제시한다. pp.94~98.

99) 『주체의 경제관리론』, pp.28~39.

100) 『주체의 경제관리론』, pp.39~48.

의 창발성을 높인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생산대중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생산부문에 있어 예비와 잠재력을 적극 동원한다는 의미만을 지닌다. 주체의 경제관리에서 제시되는 처음 두 원칙은 북한의 정치이념에서 나타나는 당과 수령의 우위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지휘자와 생산자대중 사이의 상호관계는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행정지휘관이 지휘를 유일적으로 한다”는 ‘민주주의와 유일적 지휘의 옴은 결합’의 원칙으로 파악된다.¹⁰¹⁾ 여기에서 ‘행정지휘관’이라는 용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지휘관은 경제기술적 전문가를 의미하며, 따라서 행정지휘관의 유일적 지휘는 ‘당조직의 집체적 지도 밑에 경제기술적 전문가가 경제사업을 지휘’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기술전문가의 지휘는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대중의 요구와 집체적 의사에 의해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경제·기술전문가는 당조직과 대중 사이에서 실질적 경영권을 가지기 힘들다. 경제관리가 근본적으로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관료주의와 주관주의를 경제관리 분야에서 없애기 위해 도입된 이러한 원칙은 북한의 경제가 효율성의 원칙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체의 경제관리이론은 대중을 동원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옴은 결합’이라는 원칙을 제시한다.¹⁰²⁾ 정치도덕적 자극은 사회주의 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물질적 자극¹⁰³⁾은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는 곧 경제관리실천에서 당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의미한다. 당연히 하도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북한에서 정치교양사업이 결정적 의의를 가지며, 물질적 평가는 보조적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물질적 자극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101) 『주체의 경제관리이론』, pp.49~56.

102) 『주체의 경제관리이론』, pp.57~65.

103) 물질적 자극은 생활비, 상급, 장려금과 같은 것이다. 『주체의 경제관리이론』, p.62.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원칙을 통해 대중동원의 강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총괄적으로 볼 때, 북한의 경제관리 기본 원칙은 사회주의 경제가 가지는 공산주의적 성격과 과도적 성격이라는 이중적 성격으로 인하여 불안정하고 절충적인,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적 원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다. 주체의 경제관리이론은 이러한 점을 반영 하듯 이론의 전개과정에서 좌·우경적 편향에 대한 위험을 자주 언급한다.

3. 관리체제와 관리방법

경제관리체제는 “경제를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원칙밑에 조직된 관리기구들과 그 기능들의 총체”이다.¹⁰⁴⁾ 경제관리체제는 ‘경제관리의 기본원리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인 사업체제와 ‘경제관리조직들의 구조와 직능, 그 호상관계의 체제’인 관리기구체제로 구성되어 있다.¹⁰⁵⁾ 제도·질서와 조직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관리체제는 북한의 경우 “기업소로부터 전반적인민경제에 이르기까지, 지방으로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국가적인 경제관리체제로 조직된다.”¹⁰⁶⁾ 결국, 북한에서 경제관리체제는 경제분야 국가기구의 제도·질서·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사업체제는 1960년대 초 김일성의 현지도도를 통하여 공업분야에서 형성된 대안의 사업체제와 이를 바탕으로 농업에서 형성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농업지도체제로 요약될 수 있다.¹⁰⁷⁾ 대안의 사업체제의 역사적 의의는 소련으로부터 도입된 ‘지배인

104) 『경제사전(1985) 1』, p.93.

105) 『주체의 경제관리론』, p.66.

106) 『경제사전(1985) 1』, p.93.

107) 본 논문에서는 대안의 사업체제를 통하여 북한의 경제관리체제의 기본틀을 살

유일관리제'라는 경제·기술행정지휘관 중심의 경제관리체계를 부정하고 나타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밑에 균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경제관리형태'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이미 앞에서 살펴본 주체의 경제관리의 네 가지 원칙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 특징이 된다. 이와 함께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계획화사업, 기술관리, 설비관리, 자재관리, 노력관리, 재정관리 전 분야에서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를 강조한다.¹⁰⁸⁾

대안의 사업체계에 기초하여 구축된 북한의 공업 분야 경제관리기구 체계(경제관리조직)의 핵심은 연합기업소 체계이다. 국가가 공업을 관리하는 공업지도관리의 단위인 연합기업소는 "일정한 생산물생산에서 생산기술적으로나 관리경영상으로나 긴밀한 연계를 맺고있는 기업소들을 하나의 생산조직단위로, 경영단위로 통합한 ... 기업소조직형태이며 기업관리조직형태이다."¹⁰⁹⁾ 이러한 연합기업소는 계획단위이자, 생산단위이며, 집행단위이다. 연합기업소의 위로는 정무원의 위원회와 부가 존재하며, 아래로는 산하 공장과 기업소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정확히 실현하기 위한 기업관리체계라 할 수 있는 연합기업소 체계는 경제적으로 두 가지 존재이유를 추가적으로 가진다. 하나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공업발전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복잡해지는 생산단위들간의 연계를 연합기업소 내부의 생산적 연계로 전환시킴으로써 자재공급 체계가 유통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¹¹⁰⁾ 한편, 연합기업소 체계는 독립채산제를 연합기업소 내 하부

퍼볼 것이며, 농업지도체계는 다루지 않는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1961년 12월 김일성이 대안전기공장에 현지지도를 하고 그 방법을 종합하여 만든 관리체계가 다. 김태일(1993) 참조.

108) 『주체의 경제관리론』, p.91~96. 재정관리 분야의 관리체계가 독립채산제이다.

109) 『주체의 경제관리론』, p.103.

110) 『주체의 경제관리론』, pp.111~115. 이 부분은 최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론인 거래비용이론을 연상시킨다.

공장이나 기업소 단위까지 확대하는 이중독립채산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¹¹¹⁾

경제관리방법은 경제관리체제와 함께 경제관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¹¹²⁾ 주체의 경제관리론은 관리방법의 본질로 집단주의를 들고 있다. 집단주의적 관리방법의 핵심적 내용은 정치적 방법, 경제기술적 방법, 행정조직적 방법으로 구분된다. 정치적 방법은 생산자 대중의 정치적 자각을 활성화하여 경제과업수행으로 조직을 동원하는 방법이다. 경제기술적 방법은 객관적 경제법칙과 생산의 과학기술적 요구를 인식하여 계획을 세우고 생산을 조직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북한 경제학은 과학화와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행정조직적 방법은 국가의 지도 밑에 각급 경제관리조직단위를 편성하고 단위들과 성원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제관리방법이다.¹¹³⁾

이러한 경제관리의 종합적 방법에 기초하여 경제사업의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제사업의 구체적 방법은 “경제지도일군들의 작전과 조직, 장악과 조절, 통제의 공정을 거쳐 실현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관리론은 경제조직사업과 관련된 현대적 기술수단의 이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경제관리에 경제조종학, 경제수학적 방법 및 전자계산기를 도입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전자계산기망체제의 도입에 의한 경영업무의 자동화가 “기업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처리의 신속성, 과학성, 객관성을 보장함으로써 막대한 관리로력을 줄이면서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보장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¹¹⁴⁾

111) 『주체의 경제관리론』, pp.117~118. 『주체의 경제관리론』은 제3부 ‘사회주의 경제관리체제’의 제3장에서 인민경제계획화에 해당하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는 계획화체제”를 다룬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경영학에 해당하는 인민경제계획화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112) 『경제사전(1985) 1』, p.92.

113) 『주체의 경제관리론』, pp.272~299.

114) 『주체의 경제관리론』, pp.299~303. 이와 관련하여 리동준(1992), 『경제관리업무자동화체제』 및 이정남(1992),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생명선』 참조.

VI. 결론

북한의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이념과 정책 사이에서 동요하는 이론체계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학에서 분석도구나 분석틀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경제이론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의 제약으로 인하여 북한의 경제이론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체계로 남거나, 이념을 정당화하는 '사회담론'으로 발전한다. 한편 정책이나 실용적 이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경험적·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북한의 경제학은 과학이론이 아니라 기술에 해당하는 비체계적 응용경제학을, 그것도 북한의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저급한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머무르고 만다.

북한 경제학의 한계는 연구방법에서도 나타난다. 김일성과 김정일 저작의 교조적 인용과 해석은 북한의 경제이론을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실질적으로는 북한 경제현실을 정당화하기만 하는 실천성이 전혀 없는 사회담론으로 타락하게 만든다. 아울러 집단연구에 기초한 폐쇄적·통제적 연구환경은 북한 경제학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킨다.

한편 경제학설사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북한의 경제학은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전통보다는 고전파정치경제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북한의 경제학은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 강조하는 사회관계에 기초한 경제현실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가 차원에서의 부의 증대, 사회적 자본과 노동의 효율적 사용,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이는 북한의 경제학이 근본적으로 체제정당화 이론으로서 기능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지상명제에 봉사하는 이론체계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북한 경제학은 1980년 대 중반부터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경제수학 및 수학적 방법에 대한 관심의 증대, 경제조종학·경영조종학에 대

한 관심의 증대는 북한의 경제학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또한 1990년 대 초반부터 개방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대외무역과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볼 때, 북한 경제학은 미미하나마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하는 이론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북한 경제학의 낙후성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북한 경제학 이론이 변신해야 하는 조건으로서 작동하기도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 경제학의 변신과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은 1990년 대 말 북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지표로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 경남대학교출판부, 1991.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2권.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 김명렬, 『사회주의하에서 물질적 관심성과 가치법칙의 올바른 리용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6.
- 김병로, 『김일성저작 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7.
- 김병로, 『김정일저작 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12.
- 김석빈 편, 『사회주의화폐제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김승준, 『우리 나라 농촌문제해결의 역사적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 김승준, 『사회주의완전승리에서 소유문제와 그 해결방도』. 함남: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 김영희, 『세금문제해결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 김원삼·한득보,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연구에서의 몇가지 리론문제』.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7.
- 김용칠, “경제수학적방법에 의한 생산계획작성은 경영활동의 과학화, 합리화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1990년 제4호.
- 김일남·김세국·김용언, 『조선농업사 4』. 평양: 농업출판사, 1991.
- 김일성,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 김일성,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1983.

- 김일성, 『사회주의 재정금융사업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김일성, 『철도운수를 발전시킬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김일성, 『주체의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1996.
- 김정일, 『김정일선집 1: 1964~196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김정일 선집 2: 1970~197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1988. 1~5권.
-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11.1.
-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동경: 구월서방, 1995.
- 김준기·리충관·오무일, 『조선교통운수사 3(자동차운수편)』. 평양: 공업출판사, 1991.
- 김춘성,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연계 실현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 김태일, 『북한 국영기업소의 관리운영체계』.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 사회주의경제의 전반적영역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리동준, 『경제관리업무자동화체계』.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 리명서, 『사회주의재생산의 합리적조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 리정남,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생명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리진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적농업로동보수제에 관한 리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 리창근, 『로동행정사업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 리학주, “경제동태모형화방법과 그 역할,” 『경제연구』 1992년 제3호.
- 림기범, 『우리 식 농촌문제해결의 빛나는 경험』. 평양: 농업출판사, 1992.
- 박동원, 『사회적필요로동시간계산과 경제관리의 개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박영근·김철제·리해원·김하룡, 『주체의 경제관리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보르헤스, 호르헤 루이스 저, 황병하 옮김, 『픽션들』. 서울: 민음사, 1994.
- 사회과학출판사 편, 『농민문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손영중·조희승, 『조선수공업사(1)』. 평양: 공업출판사, 1990.
- 엄재언 편, 『우리 당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 오대호, 『협동농장관리운영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 윤재창, “경제수학적방법의 리용은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과학화하기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1991년 제3호.
- 이교덕,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이채언, “맑스 정치경제학과 북한의 정치경제학: 노동가치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6권, 서울: 한울, 1993.

- 정태식, 『우리당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 조선로동당출판사,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 조선로동당출판사,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승리: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 기념 논문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과 그 생활력』,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 조선로동당출판사, 『산업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해방후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 발전』,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연구소 인민경제연구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호상 작용』,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주체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최중국, 『과도기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 함남: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 최중국, 『사회주의경제와 균형』,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 최중국,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 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 태광용, “경제수학적방법의 리용은 생산력배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1994년 제2호.

통일원, 『북한의 주요원전 색인목록(I) - 김일성저작집』, 1994.

통일원, 『북한의 주요원전 색인목록(II) - 정기간행물: 1993~1994』.

1995

통일원, 『북한의 주요원전 색인목록(III) - 정기간행물: 1991~1992』.

1996.

통일원, 『북한의 주요원전 색인목록(IV) - 『로동신문』 사설: 1986~1995』. 1996.

한득보,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2: 사회주의경제의 기본분야들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한철, “경제과정의 특성과 수학적방법,” 『경제연구』 1991년 제4호.

허영익, 『공업에 관한 지도와 관리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허중호, 『조선토지제도발달사(1)』.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황경덕, 『절약과 축적』. 평양: 국립출판사, 1958.

Dumont, L., *Homo aequalis: Genèse et épanouissement de l'idéologie économique*, Paris: Gallimard, 1977.

Marx, K., *Contribution à la Critique de l'Economie Politique*(trad. par M. Husson & G. Badia), Paris: Editions Soaiales, 1977.

Samuels, W. J., *Economics As Discourse: An Analysis of the Language of Economics*, Boston·Dordrecht·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9.

Schumpeter, J. A.,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London·Boston·Sydney: George Allen & Unwin, 1954.